

하쿠인(白隱)의 간화선에 대하여

오바마 세이코*

- I. 머리말
- II. 「하쿠인의 공안체계」라고 불리는 것
- III. 하쿠인의 수행체계과 『사지변(四智辨)』
- IV. 하쿠인의 수행관과 공안

■ 한글요약

하쿠인(白隱慧鶴, 1686-1769)은 일본 에도시대의 선승으로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이다. 그는 중국의 대혜종고의 간화선을 받아들여 공안의 수행체계를 고안하여 세운 것으로 여겨진다.

하쿠인의 저서 『사지변(四智弁)』에는 팔식(八識)이 사지(四智), (大円鏡智·平等性智·妙觀察智·成所作智)로 변하여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사지는 각각 견성체험·관조삼매·공안참구·말후의 일구(一句)로써 체험적·단계적인 설명이 되어 있다.

이 저작은 하쿠인의 수행관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간결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그의 공안수행관의 내실을 보여준다. 그것은 중국의 간화선과 겹치는 부분도 있으나, 독자적인 특징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간화선, 에도시대, 하쿠인, 공안, 『사지변』

* 오차노미즈여자대학.

I. 머리말

먼저 나의 입장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의 전공은 일본윤리사상사라는 분야이고,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은 내가 나의 전공의 입장에서 하쿠인(白隱慧鶴, 1686-1769)의 간화선(=공안선)에 대해 쓴 박사논문의 내용에 약간 가필 수정한 것이다.

일본윤리사상사라는 분야는 와즈지 테츠로(和辻哲郎, 1889-1960)에 의해서, 전쟁 후에 「인간의 보편적인 윤리가 역사적·사회적 특수조건 아래에서 어떠한 윤리사상으로 자각되어 왔는지를 특히 일본에 입장에 대해 서술하자」¹⁾는 시도로서 성립된 학문이다. 요컨대 보편적인 학문으로서의 윤리학이 유럽에서 일본에 수입되기 이전에 있었던 개별적 윤리사상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와즈지 테츠로는 윤리의 문제가 고립적 개인이 아니라 “관계(間柄)”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관계(間柄)”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자기와 타자의 관계성이고, 자기와 그것을 초월하는 타자의 문제이다. 그러한 초월적 타자와 자기의 관계를 선(禪)의 견성이나 공안에 의해 자기의 과제로 삼은 것으로서, 나는 하쿠인의 사상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다. 이 발표에서는 하쿠인에게 있어서 선의 견성이라는 초월적 체험, 그리고 그 견성을 목적으로 한 공안에 대하여, 특히 공안의 체계화와 그것의 수행에서의 위치라는 점에 착목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하고자 한다.

II. ‘하쿠인의 공안체계’라고 불리는 것

1) 和辻哲郎(2011), 13.

일본 간화선의 역사에서 공안을 체계화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용되는 수행방법으로 확립한 공로자로 간주되는 사람이 근세의 하쿠인이다. 하쿠인은 스즈키 쇼산(鈴木正三, 1579-1655) 및 반케이(盤珪, 1622-1693)와 함께 근세 일본의 가장 활동적인 선승으로 알려져 있다. 하쿠인에 관한 당시의 평가를 보여주는 자료는, 야나다 제이간(梁田蛻巖, 1672-1757)이라는 유학자는 “임제는 완전한 방하(放下)의 (계율을 버리고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많이들 이야기 한다. 하지만 근대의 타이구(大愚)·구도(愚堂)·텐케이(天桂)·코게츠(古月)·하쿠인 등의 여러 스님들은 각기 우열은 있지만, 일체의 역량을 얻은 바, 모두 법등을 이을 수 있는 인재들이다. (괄호 안의 주석은 요시자와芳澤에 의함)”²⁾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제이간의 ‘거듭하여 [片岡生]에 답함’이라는 글 속의 구절로, 제이간의 제자가 불교의 타락을 비판한 것에 대하여 불교를 옹호하는 내용이다. 제이간은 하쿠인의 지기(知己)로서, 이 자료에서 하쿠인의 이름이 타이구 소치쿠(大愚宗築, 1584-1669), 구도 토쇼쿠(愚堂東寔, 1577-1661), 텐케이 텐손(天桂伝尊, 1648-1736), 코게츠 젠자이(古月禪材, 1667-1751) 등의 선승들과 함께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쿠인의 생가는 현재의 시즈오카(静岡)현 누마즈이치하라(沼津市原)로, 여관과 운송업을 운영하였다고 한다. 본가 주변에는 시종(時宗)의 사이넨지(西念寺), 일련종(日蓮宗)의 쇼겐지(昌源寺), 나중에 하쿠인이 주지를 맡게 되는 임제종의 쇼인지(松蔭寺), 세 사찰이 있었다. 하쿠인은 사이넨지 천만궁(天満宮)에서 노닐고, 쇼겐지에서 설법을 듣고, 쇼인지에서 출가하였다. 출가 후 하쿠인은 먼저 수년간 여러 지방의 사찰을 행각하다가, 1708년 2월 에치고(越後), (니이가타新潟 현)의 에이간지(英巖寺)에서 좌선 중에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듣고

2) 芳澤勝弘(2007), 100 참조.

대오견성의 체험을 하였다고 그의 연보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 참구하고 있던 것이 ‘조주무자(趙州無字)’ 공안이었다. 그러나 그 대오를 인정받기 위하여 방문했던 정수노인(正受老人), (도쿄에탄道鏡慧端, 1642-1721)으로부터 만심(慢心)을 엄하게 비판받고, 그의 지도를 받으며 다시 수행하게 된다. 거기에서 하쿠인은 공안을 받고 수행을 계속하던 어느 날 노파에게 빗자루로 얻어맞고 다시 깨달음을 얻고, 마침내 정수노인에게 인정받게 된다. 그 후 하쿠인은 정수노인의 곁을 떠나 여러 지역을 유력한 후 1716년에 쇼인지에 돌아가 제자들을 지도하다가 1769년에 입적한다.

하쿠인이 제자들을 지도할 때 사용한 공안 중에서 처음 대오할 때의 「조주무자」와 나중에 자신이 고안한 ‘척수음성(隻手音聲)’은 입문적 공안으로서 수행자들에게 반드시 제시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하쿠인의 생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깨달음 이후의 수행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하쿠인의 밑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공안을 깨뜨려도 그 후에 다시 다른 공안을 참구하여 수행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했다. 여기에서 공안의 체계화가 필연적으로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안체계에 관한 최근의 연구로 이와이 다카오 씨의 논문이 있다.³⁾ 이 논문은 하쿠인의 공안체계에 관한 내용이 전체의 7-80%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중세의 임제종에서 이미 공안의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치(理致)’, ‘기관(機關)’, ‘향상(向上)’의 3구분이었다.⁴⁾ 하쿠인은 그것을 ‘법신(法身)’ ‘기관(機關)’ ‘언전(言詮)’ ‘난투(難透)’ ‘향상(向上)’의 5구분(경우에 따라 마지막 ‘향상’이 ‘동상오위洞上五位’ ‘십중금계(十重禁戒)’ ‘말기(末期)의 뇌관(牢關)’ 셋으로 되기

3) 岩井貴生(2015), 33-52.

4) 岩井의 논문에서 예증으로 인용되고 있는 것은 『聖一語錄』, 『大應國師法語』, 『夢中問答』이다.

도 한다)으로 다시 편성하였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위의 논문에서도 그러한 설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5구분(혹은 7구분)은 하쿠인의 저작에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미 졸고⁵⁾에서 제시한 것처럼, 이 구분에 의한 공안체계의 성립사정에 대해서는 마류 켄이치의 연구⁶⁾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마류는 이 논문에서 하쿠인의 복수의 텍스트를 비교대조하면서, 하쿠인이 수행의 단계적 진행방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서 유사한 단어와 특징적 표현이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법신’, ‘연전’, ‘뇌관’ 등의 단어들이다. 그리고 이 단어들이 나오는 근처에는 대개 함께 등장하는 공안들이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하쿠인의 공안체계라고 이야기되는 것은 후대 사람들이 하쿠인의 저작에 보이는 ‘뇌관’ 등의 정형적인 단어 및 그 단어들 근처의 문장에 등장하는 공안들을 뽑아서 수행단계에 맞게 구분·배치한 것일 거라는 것이 마류의 추론이다. 실제로 이와이의 논문에서도 하쿠인이 공안체계 그 자체를 명확하게 설명하였다고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마류의 고찰을 부정하는 자료는 아직 없다고 생각된다.

위에 언급한 하쿠인의 다섯(혹은 일곱) 구분에 어떤 공안을 배당할까 하는 점에 대해서도 사가(師家)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아래에서는 이와이의 논문에 예시되어 있는 하쿠인의 공안 12칙을 인용 순서에 따라 분류하여 표로 제시하였다(<표 1>의 왼쪽).⁷⁾ 또한 그 공안들을 근래에 아키즈키 료민에 의해 공개된 ‘엣케이(越溪)-카잔(禾山) 하실내공안체계下(室內公案體系), (이하 「엣케이-카잔 하」)에 의한 구분을 함께 대비하였다(<표 1>의 오른쪽).⁸⁾

5) 小浜聖子(2013), 참조.

6) 真流堅一(1972), 참조.

7) 원문의 명확한 誤字는 수정하였고,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글자는 보충하였다.

8) 秋月龍珉(2009), 261-335. 이 공안체계는 妙心寺의 越溪守謙

<표 2>

* 「趙州洗鉢」은 「越溪-禾山下室內公案體系」에는 보이지 않음

(岩井, 2013)		(秋月, 2009)	
趙州狗子 雲門의 乾屎橛 洞山の 麻三斤	法身	般若位	趙州無字
趙州洗鉢* 南泉斬猫	機關	禪定位	(略)
州勘庵主	言詮	精進位	州勘庵主 倩女離魂 洞山麻三 雲門屎橛
疏山壽塔 牛過窓櫺 乾峰三種病 犀牛扇子 白雲未在 南泉遷化 倩女離魂 婆子燒庵	難透	忍辱位	犀牛扇子 南泉斬猫 南泉遷化 牛過窓櫺 疏山壽塔 白雲未在 乾峰三種病 婆子燒庵
(이하 명시되어 있지 않음)	向上	自戒位	(略)
		布施位	(略)

<표 1>을 보면 개별 공안의 구분은 좌우에 중복되는 부분도 많지만 차이(표에 밑줄로 표시함)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처음에 제시되고 있는 「조주무자(趙州無字)」에 관하여 표에 제시되지 않은 정보가 있다. 이 「조주무자」는 하쿠인이 63-4세 무렵에 「척수음성(隻手音聲)」이라는 공안을 만들 때까지 전적으로 활용했다고 하는 공안

(1810-1884)와 그 제자 禾山玄鼓(西山禾山, 1838-1917)의 室內에 전하는 것으로, 秋月의 저서에는 200개의 공안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禾山이 창작한 공안도 보인다. 한편 秋月에 의하면 1987년 당시 일본 臨濟宗의 公認僧堂 39곳에는 「越溪-禾山下室內公案體系」가 모두 단절되고 秋月 혼자 계승하고 있다고 한다.

이다. 즉, 「척수음성」 창작 후에는 「조주무자」 보다는 이쪽을 처음에 사용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옛케이-카잔 하」에서의 「척수음성」의 분류는 ‘정진위’ 중의 첫 번째이다. 이에 더하여 「옛케이-카잔 하」에는 카잔이 창작한 공안도 몇 가지 보이고 있으며, 애초에 그림과는 구분의 명칭이 전혀 다르다.

이러한 점들로 생각해보면 ‘하쿠인의 공안체계’라는 것은 하나의 절대적 법칙이 있어서 공안을 구분하고 나열한 것은 아닐 것이다. 구분하는 방식에는 어느 정도 공통의 개념이 있어서, 수행의 진도에 대응하도록 고안되었다고 생각되지만, 그 구성도 스승의 재량이 허용되어 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런 점들은 종문에서는 상식적인 정보일지도 모르지만, 연구논문이나 연구 자료로써 입수 가능한 범위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추론이 사실이고, 하쿠인 자신이 기록한 공안분류의 일람표 등이 없었다고 하여도, 하쿠인 이후 체계적으로 공안수행이 이뤄지게 된 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간단히 부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행을 계속함으로써 수행자에게 변화가 생기는 것(깊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당연히 ‘만심(慢心)’이라고 하는 후퇴적인 변화도 있을 것이다)은 당연한 현상이다. 수행을 올바르게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안을 체계화하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다. 요컨대 앞에서 제시한 ‘법신’ 이하의 공안체계가 하쿠인 자신의 창작물이 아니라고 하여도 하쿠인이 공안을 수행자에게 줄 때에 상대에 맞는 공안은 무엇일까를 생각했던 것은 인정해도 좋을 것이다.

이상 공안체계 속에서 개별 공안이 분류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렇다면 수행에서 공안체계는 어떠한 위치에 있었을까. 하쿠인은 체계적인 수행관을 가지고 있던 것일까. 이어서 이러한 점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Ⅲ. 하쿠인의 수행체계과 『사지변(四智辨)』

하쿠인은 20대 중엽에 체험한 에이간지에서의 일종의 종교적 신비 체험, 즉 대오견성을 스스로의 진실한 수행의 출발점이라 여기고 저작 중에서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견성’은 6조혜능에게 비롯되는 말이므로 하쿠인이 스스로의 종교적 체험을 견성이라고 부른 것은 당연히 자기자신을 선의 전등(傳燈)에 연결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장하기 위해서 하쿠인이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은 자신의 견성체험을 선의 전통적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즉 견성이라는 신비체험적인 깨달음 증득의 도정을 선의 어록과 같은 고전적 텍스트에 따라 표현하는 것이 요구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여기에서는 선의 고전과 하쿠인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한 저작으로서 그의 수행론인 『사지변(四智辨)』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지변』은 하쿠인이 사지(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의 개념을 이용하여 수행과 깨달음의 관계를 이야기한 것이다. 현재 간행되어 있는 류긴사판 『하쿠인화상전집』(전8권)⁹⁾의 제6권에 수록되어 있는, 전집 편집위원인 모리 다이쿄(森大狂)와 묘신지의 고토 미즈무라(後藤光村)에 의한 수록작품 해설에서는 “중문 향상의 일에 속하는 것으로, 종래 세상에 나온 바 없음. 소카이(滄海)화상 회하(會下)의 사본을 저본으로 하여 다시 토레이(東嶺)화상의 진적본으로 그것을 보충함”(전집 1, 전부前付 26쪽)라고 설명하고 있다. 소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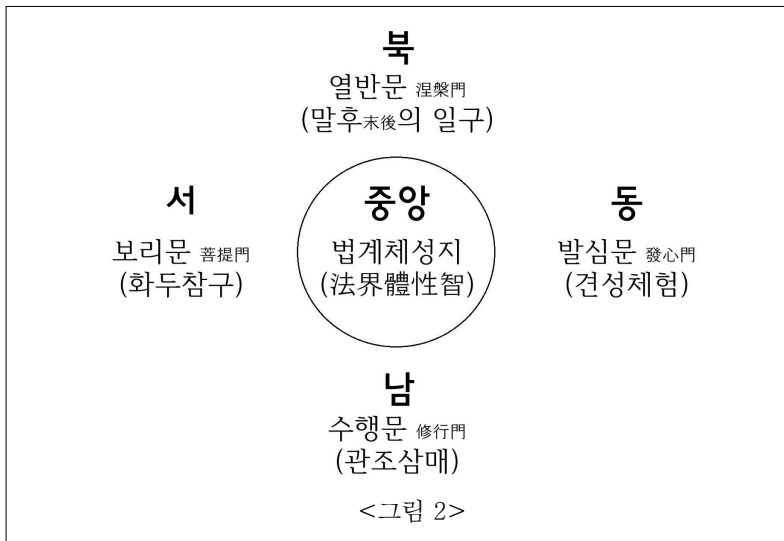
9) 『白隱和尚全集』, 龍吟社, 1934-1935. 이하의 인용에서는 ‘전집’이라고 하고 권수와 페이지를 표시함.

화상은 소카이 기운(滄海宜運, 1722-1794)으로 생각된다. 그는 휴가(日向), (미야자키 현) 출신으로, 하쿠인 아래에서 깨닫고 아카시(明石), (효고 현)의 류코쿠지(龍谷寺)에 은거하였다고 전한다. 『사지변』의 마지막에 칸세이(寬政) 4년(1792) 겨울에 소카이 이것을 필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지변』의 성립시기에 관해서는 이 이상은 알 수 없는데, 하쿠인의 다른 저작과 비교해보면 『사지변』의 견성에 관한 기술 부분에는 그가 63-4세 무렵에 창작한 「척수음성」 공안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대신 「척수음성」을 창작할 때까지 오로지 사용했다고 하는 「조주무자」 공안이 기록되어 있다. 때문에 『사지변』의 성립은 「척수음성」의 창작 이전, 즉 1747-8년 이전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사지변』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네 가지 지혜가 수행의 네 단계를 나타내는 상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원경지는 견성 체험, 평등성지는 관조삼매, 묘관찰지는 공안참구, 그리고 성소작지는 말후(末後)의 일구로서, 각각이 수행의 작용이 되어 나타나는 부처의 지혜로 설명되고 있다(<그림 1>). 나아가 그 네 가지 지혜는 하쿠인에 의해 각기 동서남북의 문으로 도식적으로 배치되어, 중앙에 있는 완전함 깨달음의 지혜를 둘러싼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다(<그림 2>). 수행자는 그 네 문의 어디로나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중심에 있는 지혜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쿠인의 주장이다.

심식(心識)	수행(修行)	불지(佛智)	불신(佛身)
전5식 (眼·耳·鼻·舌·身)	→ 중생구제 ↑	성소작지 (成所作智)	- 화신(化身)
제 6식(意識)	→ 화두참구 ↑	묘관찰지 (妙觀察智)	- 화신(化身) - 보신(報身)
제 7식(말나식)	→ 관조삼매 ↑	평등성지 (平等性智)	- 보신(報身)
제 8식(아뢰야식)	→ 견성체험 (見性體驗)	대원경지 (大圓鏡智)	- 법신(法身)

<그림 1>



<그림 1>에서 흥미로운 것은 견성체험이 가장 근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쿠인은 에이간지에서의 최초의 견성체험이 강렬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불교 안에 올바르게 위치지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하쿠인의 최초의 견성체험은 그 후 ‘만심’이라고 하여 정수노인에게 부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1>에서 알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수행의 출발점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깨달음 이후의 수행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하쿠인이 네 가지 지혜에 대하여 이야기한 내용을 대원경지부터 차례대로 제시한다.

대원경지란 무엇인가. 이른 바 초심의 학자가 이 대사大事를 마치고자 한다면 먼저 대원심大願心을 일으키고, 대신심大信心을 발하여, 본래 구축되어 있는 불성을 완전하게 보려고 하면서 일상의 보고 듣는 주체를 의심해야 한다. 행주좌와, 동정역순의 경지에서 직접 기운을 가라앉히고서 곧바로 지금 이와 같이 일체의 사물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듣는 자는 누구인가, 이와 같이 의심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는 자는 필경 어떠한 자인가라고 생각 생각마다 상속相續하면서 대용맹심, 대참괴심을 분발하면서, 의심해 갈 때에는 공부자 자연히 순숙하여 천지가 한 조각의 의단疑團이 되어, 초조한 마음이 새가 새장 속에 있는 것처럼, 쥐가 철통 속에 들어가서 나올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것처럼 요란스럽게 되리라. (중략) 수정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전체가 안과 바깥, 바닥과 천정, 들과 산, 풀과 나무, 인간과 축생, 도구와 용기 모두가 온통 허깨비와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연기와 같고, 두 눈을 밝게 뜨고 기운을 바르게 하고 봄에 있는 듯도 하고, 없는 듯도 하여서 무엇도 알 수 없는 경계가 나타나다. 이것을 식신현전識神現前의 때라고 한다. (중략) 이때에 앞으로 나아가고 물러서지 않으면 식신 곧 허물어지고 불성이 곧바로 현전한다. 이것을 대원경지라고 한다. 이것이 곧 초발심주初發心住 변성정각便成正覺의 시발점[端的]이다. 8만의 범문과 무량한 묘의에 대해 일시에 그 근원을 알게 되니, 일성일체성一成一切成·일괴일체괴一壞一切壞로 구축하지 않은 법法이 없고, 원만하지 않은 이치가 없다.

(『사지변』 전집6, pp.324-326)

수행자가 대원심과 대신심을 일으켜 대의단과 대용맹심과 대참괴심을 가지고 본래의 자기를 계속 찾아나가면 함정이나 주머니에 갇혀진 것 같은 상태가 된다.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으면 유무의 인식 분별이 사라지는 경계(식신현전의 때)가 현현하고, 그것이 허물어지면 대원경지가 증득된다. 하쿠인은 이 대원경지를 ‘초발심주 변성정각(初發心住 便成正覺)의 시발점[端的]’으로 간주하였다. 견성체험이 출발점인 것이다. 깨달음을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목적’이라고 표현한다면 대원경지의 증득은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깨달음에 다름 아니지만 불교의 수행에서는 목적이 달성된 후의 오후수행도 중요하다. 하쿠인이 이어서 평등성지 이하에서 이야기하는 바이다.

일단 견도見道가 분명하여도 관조의 힘이 강대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면 습기번뇌로 인해 장애되어 역순경계에서 자재하지 않게 된다. (중략) 먼저 그 보고 있는 당체當體를 가지고 직접 수용하고 있는 일체의 경계를 관조하여야 한다. 보는 때에는 보는 것을 관조하여 깨뜨리고, 들을 때에는 듣는 것을 관조하여 깨뜨리고, 자신의 오온을 관조하여 깨뜨리고, 눈앞의 경계의 6진을 관조하여 깨뜨리고, 전후좌우 칠전팔도七顛八倒의 모든 것을 관조하는 삼매에 들어가 내외의 여러 법法을 관조하여 깨뜨리고, 관조하여 깨뜨려서 (중략) 일체의 경계에서 전체를 관조하여 깨뜨리고, 그 마음을 물러나지 않으면, 업성業性이 자연히 사라지고, 묘해妙解가 자연히 현전하며, 해解와 행行이 상응하고 이理와 사事가 원용하며, 신심불이身心不二, 성상무애性相無礙함을 얻고, 진실평등의 경계를 이루게 되니, 평등성지라고 한다.

(『사지변』 전집6, pp.326-327)

요약하면 모든 때와 장소에서 오관의 욕망과 6진의 득실·시비 등

일체의 경계를 계속하여 관조하여, 그 마음을 물러나게 하지 않으면 윤회의 원인이 되는 업성(業性)이 저절로 사라지고, 진실평등의 경계가 성립하는데, 그것을 평등성지라고 하고 있다. 대원경지로 얻은 깨달음을 지속시키기 위해 주의하고 있는 글로 보인다. 그러나 하쿠인은 이 단계에 이르러도 이론적으로는 평등이지만 실제의 사물에 있어서는 아직 평등이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그것에 이어서 실제의 사물에 대해 지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단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묘관찰지라고 하는 것은 진실평등불이眞實平等不二의 경계에 이르러 불조차별佛祖差別의 깊은 이치를 밝혀 중생을 이익 되게 하는 방편에 통달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설혹 수행하여 무애지를 얻어도 필경에는 소승의 과굴窠窟에 빠져, 일체지와 무애지를 얻어 자재하게 응변應變하여 중생을 이익 되게 하고 자각각타自覺覺他, 각행원만覺行圓滿의 구경의 대보리에 이르지 못한다. 이를 위하여 대비원심大悲願心을 일으켜 널리 일체중생을 이익 되게 하려고 하며, 무량한 차별의 법리法理에 통달하기 위하여 먼저 불조佛祖의 언교言教를 밤낮으로 참구해야 한다. (중략) 만일 불조 난투難透의 화두를 참구하여 그 뜻을 요달了達하면 원해圓解가 밝게 드러나 일체의 법리法理가 자연히 명료하게 된다. 이것을 간경看經의 눈[眼]이라고 한다. 무릇 불조의 언교는 그 뜻이 매우 깊어 한두 차례 투과透過하여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지변』 전집6, pp.328-329)

하쿠인이 말하는 바는, 무분별지를 얻어도 자기만의 깨달음의 굴에만 머무르면 임기응변으로 마음대로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자신의 깨달음이 다른 사람의 깨달음이 되고 깨달음의 수행이 원대한 지혜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대비원심을 일으켜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글 중의 ‘불조(佛祖)의 언교(言教)’는 공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공안수행을 하는 목적은 중생을 이익 되게 하

는 방편에 통달하여 임기응변으로 행동할 수 있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쿠인에게 있어서 수행은 중생구제라고 하는 이타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수행자가 단지 견성하기 위한 공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공안은 종종 의미불명의 선문답의 말로 간주되고, 따라서 의미의 이해[=분별]을 초월한 무분별지를 깨닫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되는 경향이 있다. 분명히 그러한 일면이 있지만, 무분별지가 단순히 분별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공안도 단순히 분별이 없는 말이 아닌 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행자는 공안을 통하여 조사들의 수행을 추체험(追體驗)하고, 추체험을 반복함으로써 조사들이 체득한 깨달음을 이번에는 자기 몸을 가지고 이 세계에 자재하게 응변하여 보여 간다. 그 수행을 지나가면 수행자는 하나의 중요한 장면을 맞이하게 된다. 그것이 ‘말후(末後)의 일구(一句)’이다.

다음으로 성소작지라는 것은 구경해탈의 경계로서 비밀총지문(秘密總持門)이다. 이것을 무구지라 하고, 또 무작(無作)의 덕이라고도 한다. (중략) 비유컨대 묘관찰지는 각행원만의 꽃이 피는 것과 같고, 이 성소작지는 각행원만의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다. 이것은 우리 종(宗)의 최후향상(最後向上)의 관려자(關樞子)를 뚫지 못하면 꿈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후의 일구는 비로소 뇌관(牢關)에 이르렀다고 말한다.指南의 가르침이나 언전(言詮)의 뜻이 아니다.

(『사지변』 전집6, pp.330-331)

앞의 묘관찰지 부분에서 제시된 수행을 반복함으로써 수행자에게는 조사들의 깊은 지도가 완전히 몸에 배어 잊히지 ‘비밀총지문’ 잊게 되므로, 실제로 자리이타의 행위를 할 때에도 자연스럽게 못한 작위의 행동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작위가 없는 덕 ‘무작(無作)의 덕’이 된다. 그래서 꽃이 핀 다음의 열매로 비유된다. 꽃과 열매가 다른 점은, 꽃이 그 식물 본체의 왕성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인 데 대하여, 열매는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 영양이 되는 것, 그리고 식물 본체에 있어서는 후세에의 계승이 된다는 점이다. 후세에의 계승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전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식물 본체로 비유되고 있는 것은 수행자가 아니라 부처의 가르침 그 자체의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말후(末後)의 일구(一句)”는 견성을 표현하는 어구이다.¹⁰⁾ 『벽암록』 제46칙 「경청우적성(鏡淸雨滴聲)」에는 당나라 경청(鏡淸)선사의 “출신(出身)은 오히려 쉬워도, 탈체(脫體)에 대해 말하는 것은 도리어 어렵다.”는 말이 있다. 그 해석은, 깨달았다면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¹¹⁾ 이러한 생각의 원류를 찾아보면 고타마 붓다의 초전법륜에 거슬러 올라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부처의 깨달음은 고타마 붓다 개인에 그치지 않고 말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졌다. 이러한 전법의 사실이 대승불교에서의 이타설을 떠받치는 근원이 되었고, 경청을 비롯한 많은 다양한 수행자들이 깨달음을 말로 표현하는 행위로 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결국 “말후의 일구”란 수행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처의 참된 가르침, 즉 불법을 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수행자는 이미 불법을 배우려고 하는 수동적인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쳐 인도하려고 하는 입장으로 상정되고 있다.

IV. 하쿠인의 수행관과 공안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쿠인에게 있어서 공안은 확실히 수행의

10) 『碧巖錄』 제9칙 「趙州東西南北」의 評唱 참조.

11) 入谷義高(2012), 5 참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공안으로 깨닫는 것이 목적이라기 보다는 견성체험 및 오후(悟後) 수행의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공안보다 적절한 것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교육방법으로서의 편의성만이 아니라 공안참구 그 자체가 수행이기도 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쿠인은 공안을 종종 과거 선자(禪者)의 깨달음의 ‘인연’이라고 불렀다. 공안은 본래 개인의 깨달음의 장면을 표현한 기록문서이다. 그것이 ‘공안’으로서 참구의 대상이 될 때, 그 개인의 깨달음을 수행자가 추체험할 수 있다는 의미를 띠게 된다. 공안의 매력을 생각해 보면, 깨달음의 체험이라는 특수성과 그 특수성을 추체험할 수 있다는 보편성의 두 가지 의미가 융합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예를 들면 「당신과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깨달음에 있어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가 공안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하쿠인 연구에 관하여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그림 2> 중앙의 ‘법계체성지(法界體性智)’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밀교의 5지(五智) 중의 하나이다. 일본의 선과 밀교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에도 시대의 하쿠인의 저서에 5지의 용어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입수한 『하쿠인선사 제창 벽암집비초복각판』¹²⁾이라는 책에 대해서이다. 이 책의 편찬자인 나가타 하루오(永田春雄)의 「서언」에 의하면, 하쿠인은 48세에서 82세 사이에 『벽암록』을 약 14회 제창하였고, 이 『벽암집비초』는 그 내용을 시자가 기록하고서 오랫동안 감추어 둔 것을 시자의 사후에 청계도인(淸溪道人)이라는 사람이 필사한 것이라고 한다. 그 시자의 이름은 알

12) 『白隱禪師提唱 碧巖集秘抄 復刻版』(원저는 大正5년 발행), 至言社, 1973년 8월 31일. 600부 한정판 중 제390번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수 없지만 기록된 내용으로 볼 때 하쿠인의 고제였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서언」에는 『벽암집비초』의 제1칙의 수시垂示와 본칙 처음의 몇 단어, 그리고 제16칙에서 제20칙까지 6칙의 하쿠인의 제창(提唱)이 누락되어 있다고 쓰여 있다. 그 누락된 이유는 「서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완전한 하쿠인의 『벽암록』 제창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쿠인의 제창 부분을 볼 때에 설두(雪竇)의 계송과 원오(圓悟)의 수시·착어·평창의 번역(해석)을 이야기한 것을 엿볼 수 있는데, 앞으로의 하쿠인 연구나 근세 일본에서 행해진 제창의 연구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원전류

『白隱和尚全集』全8卷、龍吟社、1934-1935.

『白隱禪師提唱 碧巖集秘抄 復刻版』(原版1916發行)、至言社、1973.

2. 단행본

和辻哲郎(2011), 『日本倫理思想史(一)』, 岩波文庫.

秋月龍珉(2009), 『公案-实践的禪入門』, 筑摩書房.

入矢義高(2012), 『求道と悦楽: 中国の禪と詩』, 岩波書店, (増補版).

3. 논문

芳澤勝弘(2007), 「白隱の漢文語録『荊叢毒蘂』刊行の経緯: 梁田蛻巖・池大雅との関わりについて」, 『花園大学国際禅学研究所論叢』, 第2号, 花園大学国際禅学研究所.

岩井貴生(2015), 「公案体系とその構造」, 『佛教經濟研究』, 44, 駒澤大学仏教經濟研究所.

小濱聖子(2013), 「白隱の修行観」, お茶の水女子大学人間文化創成科学研究科, 博士学位論文.

真流堅一(1972), 「白隱禪における人間形成の思想」, 『熊本大学教育学部紀要』 21-2.

■ Abstract

Hakuin's Kanna zen

Seiko Obama

Hakuin 白隱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Zen buddhist of Japanese Rinzaï臨濟 sect in Edo era. He constructed the training method of Koan 公案 from Daie Soko(Dahui Zonggao 大慧宗杲)'s kanna zen(kanhua chan 看話禪). Hakuin's "Shichiben 四智弁" shows his thought about process of monks' becoming Buddha by changing 'eight consciousnesses(八識)' to 'four wisdoms(四智)'. In "Shichiben", Hakuin explains that great perfect mirror wisdom(大円鏡智) means experience of enlightenment(見性体験), wisdom of equality(平等性智) means contemplative Samadhi(觀照三昧), wisdom of wondrous observation(妙觀察智) means studying of Koan(公案參究), and wisdom of accomplishing that which is to be done(成所作智) means a phrase of awaness(末後一句). That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Chinese kannna zen, but we can see some of the different and his original points in the book.

Keywords ● Kanna zen, Edo period, Hakuin, Koan, "Shichiben(Speech of four wisdoms)"